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HiRD Korea

2023 March vol. 321

03



HiRDK 한국산업인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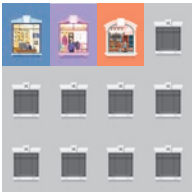
04



10



발행일 2023년 3월 1일
발행인 어수봉
편집인 윤명섭
등록번호 울산중, 라00006
등록일자 1982년 9월 29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미디어실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전화 052.714.8195
팩스 052.714.8200
제작 디자인글꼴
디자인 우선정
글 박소현
전화 051.636.1210



Cover Story

색색의 기술을 차곡차곡 쌓아올려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2023 HRD Korea 3월호에는
 더 높은 기술, 더 가치 있는 결과를
 위해 도전하는 숙련기술인의
 값진 빛깔을 담았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보 구독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HRD KOREA」는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외국인고용
 지원, 해외취업, 숙련기술장려 및 기능경기 등 국가인적자원개발
 (HRD)사업에 대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월 제작해, 무
 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게재된 외부글은 한국산업인력
 공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빛고

H

- 04 **능력을 빛는 사람들**
기술과 예술의 융합, 대한민국 대표 가구를 만든다
_우수숙련기술자 김장희 우드갤러리 대표
- 08 **NCS 돌보기**
공간에 가치를 더하는 가구
_가구제작 직무분석
- 10 **HRD Focus**
충북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
- 14 **업그레이드 HRD**
기업 맞춤 처방으로 변화하는 직업훈련 패러다임

#기술로 #살아

R

- 16 **HRDK 인포그래픽**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웃는 일학습병행
- 18 **HRDK 이야기**
학습하는 기업 문화로 이룬 인재와 기업의 동반성장
_제일전기공업(주)
- 22 **미래를 짓다**
2022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 24 **상생스토리**
지역과 상생하는 행복 일터를 빛다
_행복바라기

#한 단계 #성장하며

D

- 28 **함께 한 걸음**
칙칙폭폭 섬진강 따라 봄이 오는 소리
_섬진강기차마을
- 32 **세대공감 비즈니스**
MZ가 그리는 재테크 新풍속도
- 34 **뜨는 키워드, 뜨는 직업**
노인을 위한 시장은 있다 _ 에이지 프렌들리

#이어지는 #HRDK

K

- 38 **읽어주는 직방**
올드루키의 취업전략!
- 40 **청렴 이야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
- 42 **HRD뉴스**
- 44 **독자이야기**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2014년 도입된 일학습병행.
기업에는 현장맞춤형 우수 핵심인재 육성의 열쇠가 되고,
근로자에게는 직무 전문성 강화와 조기 취업의 발판이 됩니다.
일과 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일학습병행으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웃는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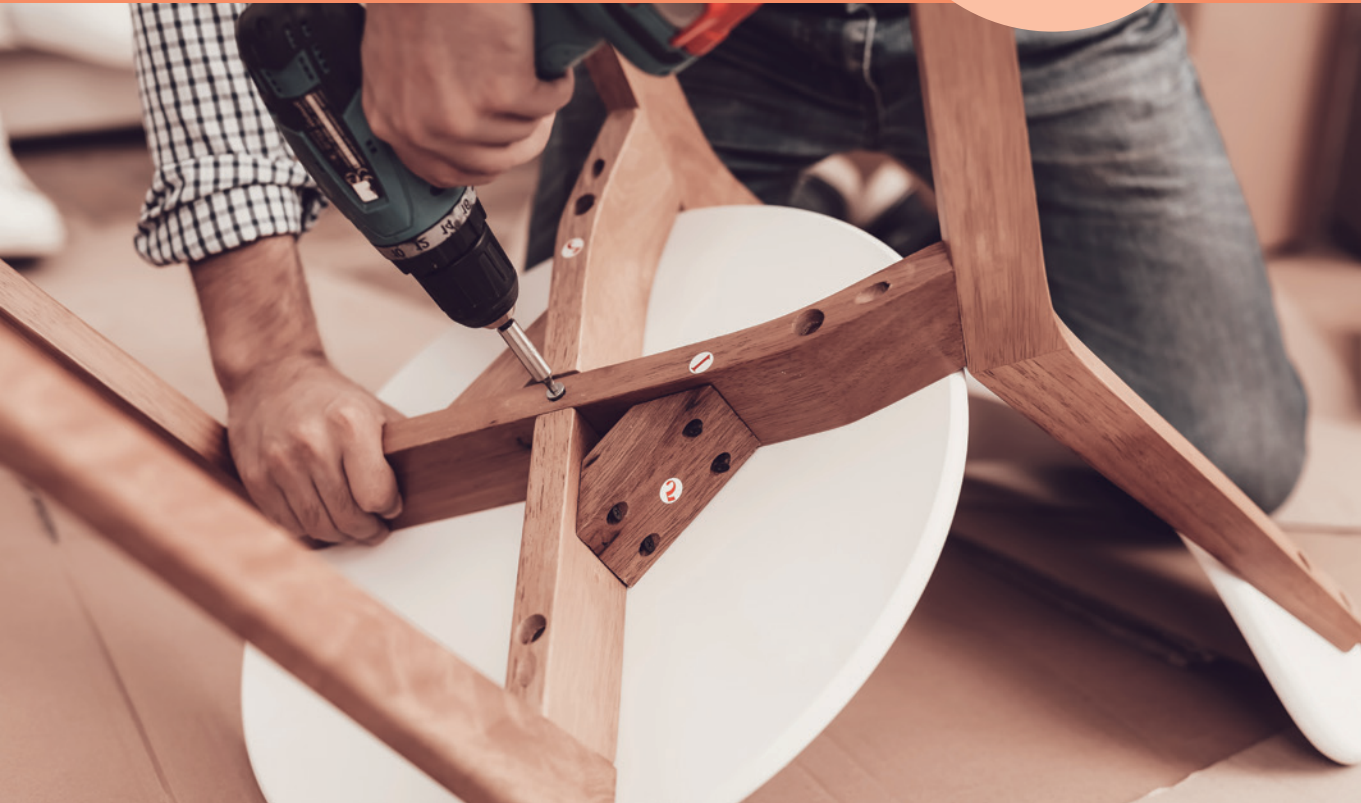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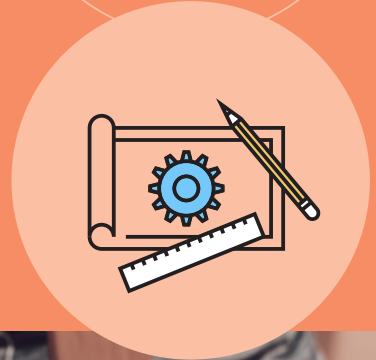
일학습병행 참여 학습기업 수 (누적, 2022. 12월 기준)

19,165_개

일학습병행 참여 학습근로자 수 (누적, 2022. 12월 기준)

132,055_명

위러밸(Work-Learning Balance)!
일과 학습 모두 놓치지 않는 일학습병행





천연 나무가
만들어낸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정취도
따릅니다.

기술과 예술의 융합, 대한민국 대표 가구를 만들다

-
우수숙련기술자 김장희
우드갤러리 대표



현대에 이르러 공간은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었다. 공간을 채우는 가구가 인테리어에서 절대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목재에 기술과 예술을 새겨넣는 가구 숙련기술인, 우드갤러리의 김장희 대표를 만나보았다.

손재주가 좋았던 소년, 기술인이 되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우드갤러리 매장에 들어서면 은은하게 풍겨오는 나무 향기가 방문객을 반긴다. 천연 나무를 다듬고 잘라 만들어낸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정취도 뒤따른다.

김장희 대표가 가구에 입문한 건 비교적 어렸을 때다.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공부를 잘했고, 교육에 진심이던 아버지 덕분에 고등학교까지 진학했지만, 아무리 봐도 자신이 계속 공부를 하는 건 욕심이라는 철든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담임 선생님까지 찾아와 만류했지만 결국 학교를 떠나, 기술을 배우고자 무작정 세차장에 취직했다.

한동안 세차만 반복하던 그는 문득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결국 서울로 올라왔다. 체계적으로 기술을 배우고자 직업훈련을 시작한 것. 높은 경쟁률을 뚫고 훈련생이 된 그는 건축목공 과정을 선택하며 본격적으로 가구 직종의 길을 걷게 된다.

“지금은 반도체나 개발 분야가 전망이 밝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가구를 최고라 쳤어요. 아파트가 분양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구 사업은 떼돈을 버는 사업이라 여겨졌죠.”

시골에서 자란 김장희 대표에게겐 타고난 손재주가 있었다. 어릴 때부터 나무를 깎아 썰매, 팽이, 연 등을 만들었던 솜씨는 훈련원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됐다.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면 금세 따라 했고, 어려워하는 주변 친구들도 많이 도와줬다.

뛰어난 실력 덕분에 김장희 대표는 기능올림픽 대회를

위한 특수훈련생이 됐고, 위계질서가 강한 분위기 속에서 밤늦게까지 훈련을 이어갔다. 그리고 지방대회, 전국대회에 차례로 도전하며 마침내 국가대표로서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출전 자격을 얻게 됐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그리고 창업까지

김장희 대표는 1985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2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가구 직종 분야에 도전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저는 기술을 배워서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가진 기술을 전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지요. 그래서 메달을 땀을 때 더욱 기뻐했습니다. 제 꿈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겠구나 싶었죠.”

이후 브랜드 침대회사, 원목가구 회사 등에서 일하며 현장 경험을 충분히 쌓은 후 1992년, 종합가구회사 우드갤러리를 창업했다. 워낙 어린 나이에 입문했기 때문에 그의 나이 채 서른도 되지 않았던 때였다.



당연한 말이지만 가구에도 유행이 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작업 조건도 끊임없이 달라졌다. 창업 후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노동집약적 사업이었던 가구 제조업은 동남아시아로 공장들을 옮겨갔고, 아이템 전환 역시 빠르게 이루어졌다. 대형가구들은 지금도 김장희 대표가 디자인·설계해서 해외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도마 등 원목 소품 역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종류가 크게 늘어났다. 그는 급변하는 시장에 대비해 꾸준히 공부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축인테리어 전공으로 대학도 마쳤다. 수없이 가구박람회 등을 다녔고, 아웃소싱을 위해 매달 베트남 공장에 방문해 개발작업에도 매진했다.

한편 월넛, 오크, 애쉬 등 좋은 원목을 골라 좋은 가구를 만드는 게 기본이라는 그에게는 몇 가지 엄격한 원칙이 있다. 디자인, 가격 그리고 품질이다. 디자인에만 집중하면 실용성이 부족한 작품이 되고, 가격에만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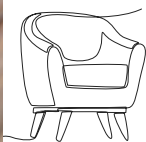


중하면 제품의 질에 문제가 생긴다. 튼튼하기만 해서 는 또 소비자의 심미안에 차지 않는다. 김장희 대표는 이를 위해 친환경 도료와 천연원목을 이용하고, 전통적인 짜맞춤 기법과 최신설비를 사용해 어떤 수입 가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섬세한 가구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덕분일까? 우드갤러리에는 단골이 유난히 많다. 식탁을 사 갔던 손님은 다시 와서 장식장을 사가고, 지인들에게 소개해 또 다른 단골이 생기곤 한다.

대한민국 가구제작의 밝은 미래를 꿈꾸다

김장희 대표는 업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아들까지 대를 이은 가구 마이스터 가문이기 때문이다.

“둘째 아들 역시 가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장에서 와서 나무를 만지고 자르면서 놀던 아이였죠. 대학까지 합격해 놓고선 급작스럽게 진로를 바꿨는데, 입문 8개월 만에 전국대회에서 7등을 하는 등 저력을 보여주더군요. 제40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해 우수상 받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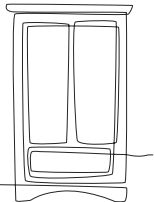
큰아들까지 합세해 세 부자가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지금, 김장희 대표는 스스로를 ‘좋아하는 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 말한다.

가구에 몰두한 지 어느덧 40년. 이제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장, 국제심사위원, 가구 마에스트로, 산업현장 교수 등으로 더 바쁜 일상을 보내며 기술 전수와 후진양성에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저는 평생 혜택을 받아왔어요. 좋아하는 가구를 만들었을 뿐인데 훈장부터, 포상금, 기능장려금 등 다양한 기회를 얻었고, 지금도 누리고 있죠. 이제 받은 만큼 돌려드리고 싶어요.”

2021년, 김장희 대표는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됐다. 그동안은 타이틀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지만, 후배들의 기대에 보답하고 자신을 부르는 수많은 호칭을 통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며 비로소 명장을 향한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나무를 만진 지 40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의 후회도 없었다는 김장희 대표. 그의 꿈은 명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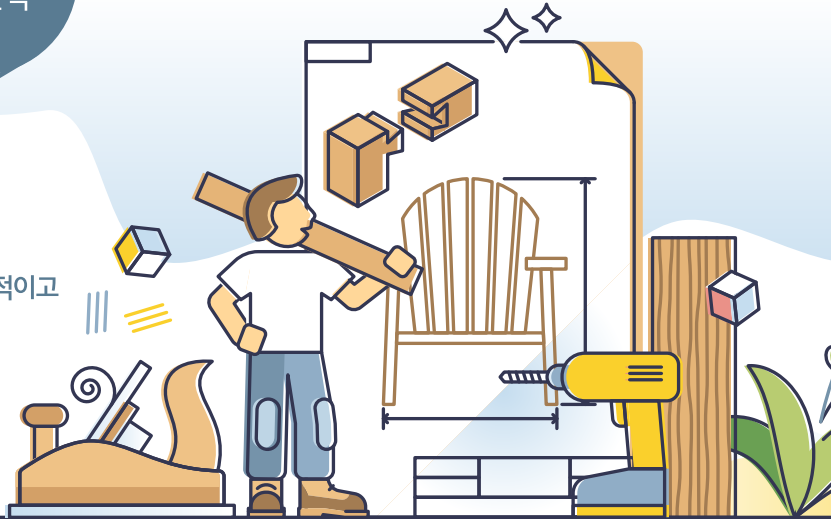
“앞으로 좋은 사람들과 차 한잔이든, 막걸리든 먹고 마시면서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 싶어요. 가구를 배우려는 후배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제 일엔 은퇴가 없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이 일을 끝까지, 오래도록 놓지 않을 것입니다.”



공간에 가치를 더하는 가구

가구제작
직무분석

가구제작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가구재료를
다양한 공구와 장비로 가공 조립하여 실용적이고
심미성 있는 가구를 만드는 일이다.
가구제작의 구체적 직무를 세분하는
NCS 능력단위를 확인해보자.



22.인쇄·목재·가구·공예 >
02.공예 > 01.공예 > 06.가구제작

출처
NCS 국가직무능력표준(www.ncs.go.kr)
NCS 및 학습모듈 검색




가구제작 NCS능력단위

능력단위명	수준
1 가구 설계	2
2 가구제작 작업계획 수립	5
3 짜임과 이음작업	2
4 가구 세공작업	2
5 CNC 가공작업	3
6 가구 도장작업	2
7 가구 제품관리	4
8 가구제작 작업안전관리	2
9 가구제작 제품기획	3

능력단위명	수준
10 가구아이디어 구체화	3
11 가구 모델링 작업	3
12 가구 렌더링 작업	3
13 가구재료 수립	2
14 가구제작 작업준비	2
15 가구 연마작업	2
16 가구 가공작업	2
17 가구 하드웨어 작업	3
18 가구 조립작업	3

가구 조립작업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가구제작의 능력단위 가운데 가구 조립하기에 대해 알아본다. 이에 필요한 능력단위 요소는 ① 가구 구조 알기 ② 가구 조립하기 ③ 접착제 사용하기가 있다. 다음은 ② 가구 조립하기에 필요한 수행 준거와 KSA(지식·기술·태도)다.

분류번호 2202010623_21v4 능력단위 명칭 가구 조립작업							
정의	가구 조립작업이란 부자재별로 제작된 부분품을 서로 결합하기 위하여 기타 조립도구 및 접착제를 사용하여 몸체를 조립하는 능력이다.						
요소	2202010623_21v4.2 가구 조립하기						
수행 준거	<div><div>2.1 가구조립의 구조를 알고 있고 조립도구를 결정할 수 있다.</div><div>2.2 조립을 위한 지그사용, 조립순서, 방법에 맞게 조립을 할 수 있다.</div><div>2.3 조립 후 불량 유무를 파악하여 보수를 할 수 있다.</div></div> <div><table><tr><th>지식</th><th>기술</th><th>태도</th></tr><tr><td><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의 구조 지식* 가구 조립순서* 가구 조립방법* 가구 조립도구의 종류* 도면해독 지식* 가구 조립을 위한 지그 사용법* 조립불량 현상에 대한 조치법</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의 구조별 가구형태 적용 기술* 가구 조립순서에 대한 기술* 가구조립방법에 대한 기술* 가구 조립도구의 종류별 사용기술* 도면해독 기술* 조립불량 현상에 대한 보수능력</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립불량 방지를 위한 노력* 안전사항준수* 작업장 정리 정돈</td></tr></table></div>	지식	기술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의 구조 지식* 가구 조립순서* 가구 조립방법* 가구 조립도구의 종류* 도면해독 지식* 가구 조립을 위한 지그 사용법* 조립불량 현상에 대한 조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의 구조별 가구형태 적용 기술* 가구 조립순서에 대한 기술* 가구조립방법에 대한 기술* 가구 조립도구의 종류별 사용기술* 도면해독 기술* 조립불량 현상에 대한 보수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립불량 방지를 위한 노력* 안전사항준수* 작업장 정리 정돈
	지식	기술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의 구조 지식* 가구 조립순서* 가구 조립방법* 가구 조립도구의 종류* 도면해독 지식* 가구 조립을 위한 지그 사용법* 조립불량 현상에 대한 조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의 구조별 가구형태 적용 기술* 가구 조립순서에 대한 기술* 가구조립방법에 대한 기술* 가구 조립도구의 종류별 사용기술* 도면해독 기술* 조립불량 현상에 대한 보수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립불량 방지를 위한 노력* 안전사항준수* 작업장 정리 정돈					

충북 경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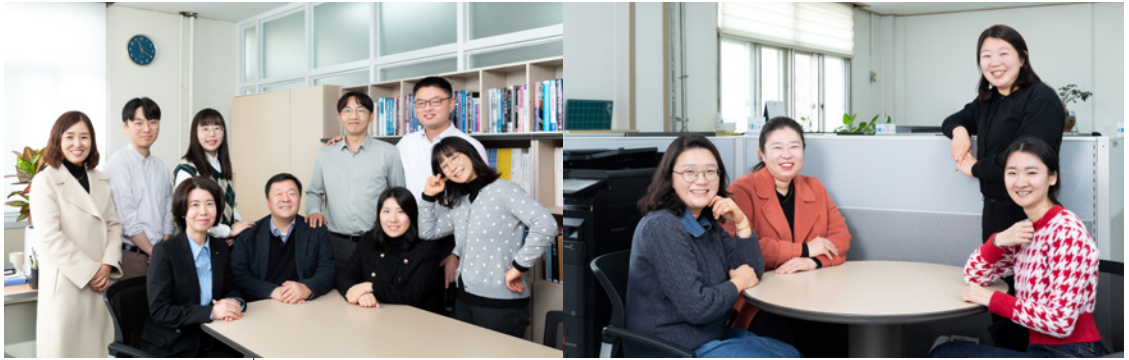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속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

청주에 위치한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013년 출범하여 충북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수요조사부터 홍보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과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매진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아래 왼쪽부터) 이리나 선임연구원, 정수현 수석연구원, 이병찬 선임연구원, 박주미 연구원, 한윤희 선임연구원, 임종혁 선임연구원, 서영순 선임연구원, 송현미 선임연구원, 이혜진 책임연구원, 위만희 연구원, 오경희 책임연구원 (위 왼쪽부터) 김혜연 연구원, 정해권 연구원



인력양성사업팀(왼)과 일자리창출팀(오)

맞춤형 사업으로 충북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다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자체,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공급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수요에 따른 직업훈련 공급 등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17개 광역시도에 하나씩 위치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별로 상이한 환경이나 배경에 따라 지역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충북인자위) 역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최상천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2개 팀에서 14명이 일하고 있는 이곳은 충북지역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그 어느 곳보다 촘촘한 그물망을 짜 사업을 수행 중이며, 자타가 공인하는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저희는 지역 유관 단체와의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지역의 인력양성 관련 이슈를 발굴하고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 인력 및 교육훈련 수급조사, 교육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현황분석, 인적자원개발 관련 자원 배분 및 조정, 인력양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신이 속한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인력양성팀의 정수현 팀장은 충북인자위 역시 충북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특징, 그에 따른 인력과 교육훈련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말한다.



지역 내 수요에 기반한 사업수행



“충북지역은 지능형IT부품산업과 바이오헬스산업이 근간을 이루는 곳입니다. 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가 위치하고 오송에는 바이오에 특화된 기업과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예를 들어 식약처가 오송에 있는 이유는 충청북도 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입니다.”

충북인자위의 사업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기업 및 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인력난 해소 및 고용률 제고,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충북인자위는 인력 및 교육훈련 수급조사 실시 및 분석, 우수 훈련기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 공동훈련센터 선정 및 모니터링, 수급분석 결과를 활용한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 연계 및 조정을 도모하며 실무협의회, 지역인력양성협의회, 생활권 및 산업별분과위원회, 기능별분과위원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전체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북인자위가 시행하는 정기적인 수요조사와 심층조사는 인적자원개발의 근간이 되는 조사다. 이를 바탕으로 5개 공동훈련센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훈련과정을 개발·실시하고, 그 결과 2022년에는 5,409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 이 중 5,360명이 수료함으로써 전국 1위 수준의 훈련 인원으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지역노동시장 분석, 일자리사업 현황 파악,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추진 등을 위해 3명의 지역고용전문관을 배치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내 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성과 관리·감독, 지역 고용발전계획 수립, 광역단위 일자리사업 성과관리 및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은 2021년 찾아가는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특화) 시범사업에서 시작됐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도내 산업 현황을 기반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필요한 지원대상산업, 그리고 지역 주력산업 등과 연계한 육성산업을 지정하여 그에 걸맞은 인력양성을 목표로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과평가 종합 A등급 달성

양평군청 공무원인력개발팀 팀장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인원으로 이처럼 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 충북인자위는 그 역량과 성과를 크게 인정받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날’ 행사에서 ‘2021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성과평가 종합 A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구성원들은 이러한 성과의 바탕엔 팀원 간의 협업과 소통이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실제로 충북인자위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중 가장 인원 변동이 없는 곳으로, 고정 인력이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하우는 물론 팀워크까지 두텁게 다져졌다.

“모 대기업에 ‘따로 또 같이’라는 사훈이 있어요. 말 그대로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하지만, 누구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되거든요. 같이 해야 할 때는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협업해야 하죠.”

충북인자위가 설립된 지 올해로 10년이다. 4명으로 시작된 인원은 전담인력을 기준으로 현재 12명이 됐다. 그동안 ‘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비할 데 없이 커졌고, 관계자들이 충북인자위를 먼저 찾아올 만큼 기관의 위상도 높아졌다.

“산업의 변화는 교육의 변화보다 빠릅니다. 산업이 발전과 쇠퇴를 반복하면서 그중 살아남은 분들이 기술을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달리 지금은 산업을 마이크로하게 봐야 하며, 기업 측면에서 벗어나 이제 구직자들이 요구하는 것, 즉 공급에 좀 더 초점을 뒀 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고용주와 구직자들이 동반 상승, 동반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예요.”

인터뷰 말미, 충북인자위 사람들이 모두 한데 모여 단체 사진을 찍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직원들답게 마치 가족사진이라도 찍는 양 웃음과 농담이 연달아 터지는 현상이 즐겁기만 하다. 거버넌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통합하여 안정적인 지역 고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도모하는 이들의 건강하고 단단한 뿌리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지역경제가 몹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기업 맞춤형 처방으로 변화하는 직업훈련 패러다임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발대식 개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맞춤형 처방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불러올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앞으로 개선될 기업 직업능력개발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자.

업그레이드되는 직업능력개발정책, 그 신호탄을 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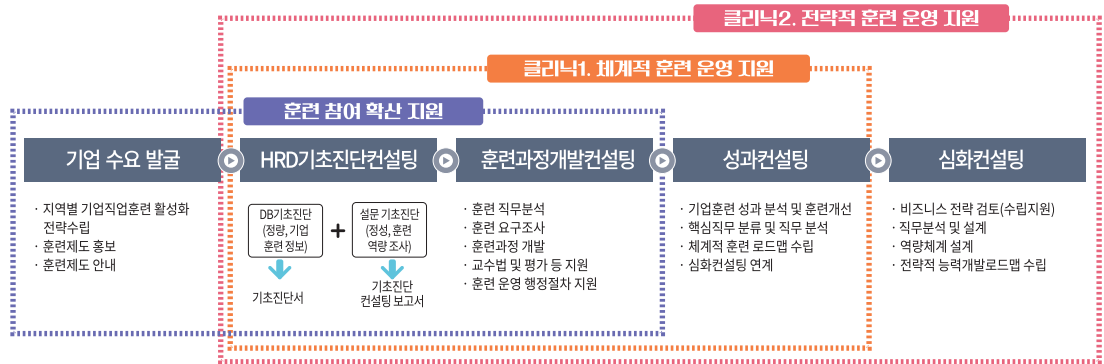
지난 2월 2일, 공단과 고용노동부는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어수봉 공단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한국 HRD협회, 한국인력개발학회 등 HRD 전문가 다수가 참여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담당 인력 또는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직업훈련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를 도입, 이전의 기업이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기업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직업능력개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직업능력개발 종합 지원기관으로서 그간 공단이 축적한 인적자원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양적·질적 직업훈련성과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표했다.





훈련 확산 > 맞춤형 훈련 공급 > 체계적 훈련 운영 > 전략적 HRD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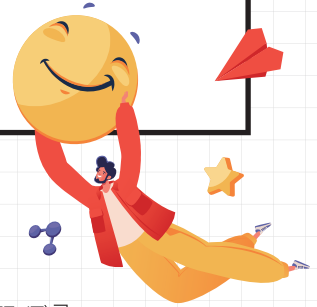
기업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이렇게 개선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공단의 HRD 전문가가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담주치의는 공단 내 직업능력 개발 사업수행 경력자, 능력개발지도사 등 사내 자격 취득자와 같이 HRD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보유한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첫째,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직업훈련사업을 안내·홍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둘째, 기업 진단 결과에 기반한 '기업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컨설팅', 셋째, 단순 직업훈련을 넘어 '중소기업의 HRD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시행했으며, 올해부터는 공단 지부·지사 23개소에 122명의 전담주치의를 배치하여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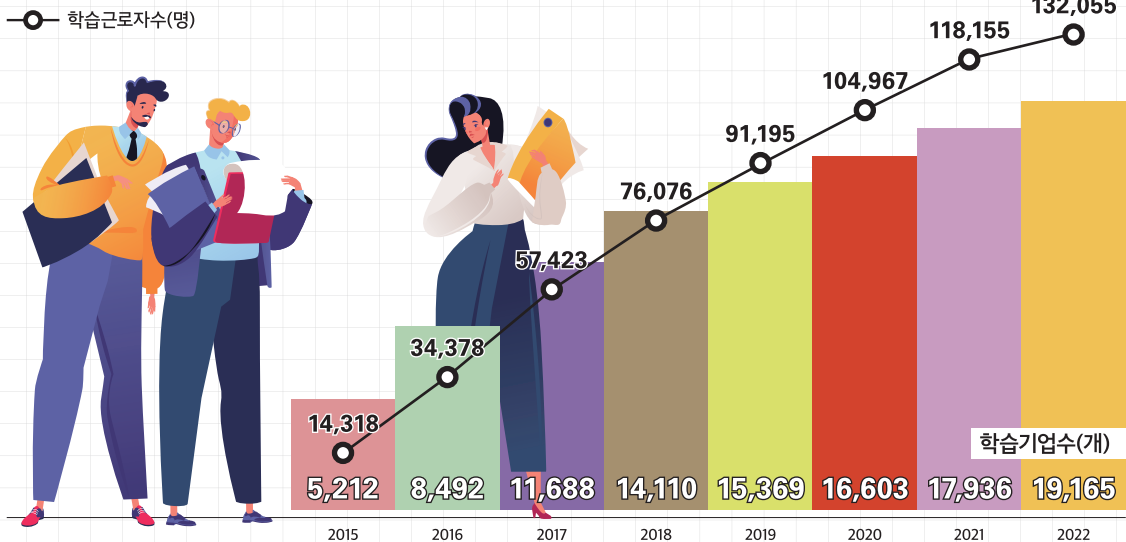
일터에서 배우는 현장 기반 훈련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웃는 일학습병행



한국형 현장 기반 훈련, 일과 학습을 동시에!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교육(OJT)하고, 학교 또는 공동훈련센터에서 이론교육(OFF-JT)를
실시한 후, 평가를 통해 자격으로 인정받도록 교육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이다.

[많은 기업, 근로자와 함께 해 온 일학습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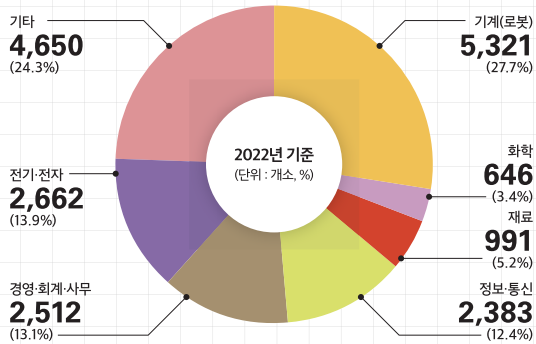
[일학습병행,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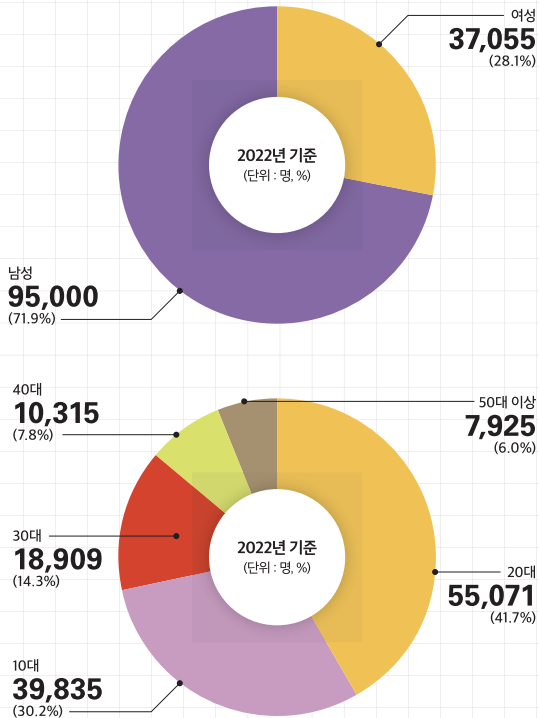
일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일학습병행

공단은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참여 학습기업의 지원과 혜택을 강화하고, 참여 학습근로자에게 더 수준 높은 경력개발과 성장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직종별 일학습병행 현황]



[학습근로자 현황]



[학습기업 참여 혜택]

- * 고용노동부, 교육부
Best HRD 심사평가 우대
- * 병무청
병역 특례업체 지정 가점
- * 조달청
일반응역 적격심사 가점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선정 가점

[학습근로자 참여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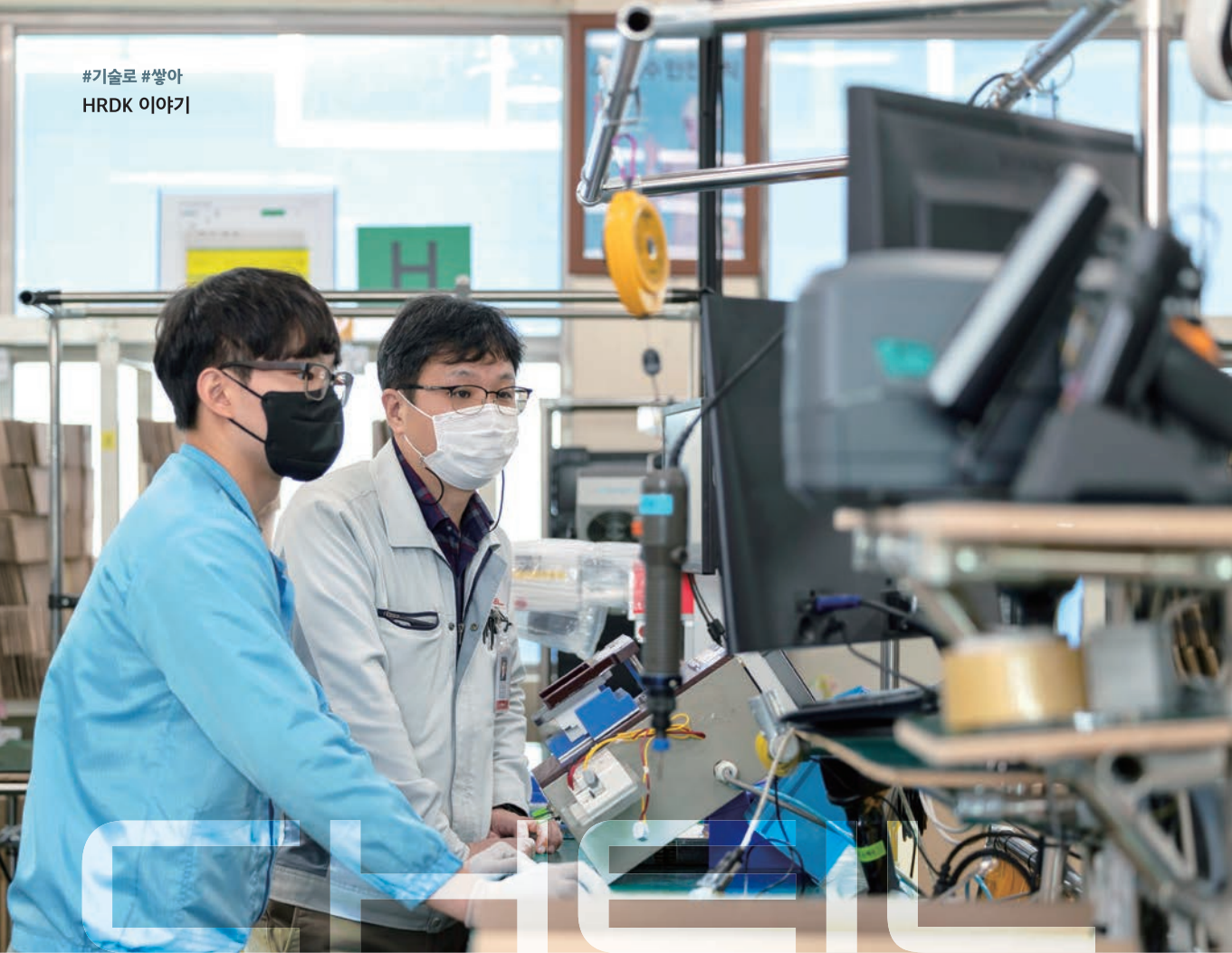
- * 학습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조건 보장 강화
- * 평가를 통한 국가자격 취득 가능
- * 학위과정 연계 시 학위 취득 가능

일학습병행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일학습병행 지원사항, 참여 요건, 참여 유형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일학습병행 공식 블로그 검색 또는
고객센터(1644-8000) 문의





학습하는 기업 문화로 이룬 인재와 기업의 동반성장

2022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제일전기공업(주)

기술력과 품질로 스마트 배선기구 및 분전반 시장을 선도하는 제일전기공업(주). 67년 업력의 전문성 외에도 그들을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인재와 기술에 대한 아낌 없는 투자가 있어서였다. 그런 제일전기공업(주)이 일학습병행을 만나 또 어떤 시너지를 낳았을까.

기술인 양성에 대한 의지, 새로운 변화를 더하다

제일전기공업(주)의 걸어온 길은 눈부시다. 2016년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2017년 무역의 날 5천만 불 수출의 탑, 2018

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대통령표창까지... 이 모든 걸출한 성과의 원동력은 ‘직원 역량이 곧 기업 성장’이라는 CEO의 강한 의지에 있었다.

“직원 개개인의 역량이 모여서 기업 성장이라는 결실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교육에 집중하고 있죠.”

김용규 대표이사 부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인재 양성 철학은 직원 교육 정책으로 이어졌다. 2015년부터 특성화고 학생을 채용해 ‘선취업 후진학’으로 미래 기술인 양성에 힘을 기울여 온 것.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에, 일학습병행 역시 더 큰 시너지를 불러오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전에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청년층의 채용률이 낮고, 핵심인재의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또한, 직급·직무별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HRD 담당자 권예정 책임의 말처럼 제일전기공업(주)은 우수한 기술력과 기술인 양성에 대한 의지를 보유했지

만, 현실적 문제로 인해 안정적 인적자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일학습병행을 도입하고 학습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며, 유의미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안전과 실전성을 최우선으로 안착한 일학습병행

물론 그 과정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2016년 재직자 과정 첫 도입 당시, 신입사원 14명을 대상으로 OJT를 활용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해 2교대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 됐고, 대다수가 중도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조직 내 좋지 않은 인식이 확산됐고, 경영진은 일학습병행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했다. 하지만 CEO의 강력한 의지로 2018년, 재학생 단계인 도제과정을 시작했다.

도제과정을 시작한 두 명의 직원은 OJT를 받아 전문 기술도 갖췄고 회사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자연



스럽게 숙련 인력이 충원되어 공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생겼다. 이에 힘입어 2019년부터는 IPP과정을, 2021년에는 P-TECH(고숙련일학습병행)과정까지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제일전기공업(주)이 성공적인 일학습병행 정착을 위해 교육 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무엇일까? 자재팀 채석준 수석은 그 답으로 '안전'을 꼽았다. "새로운 환경에서 모르는 설비나 기계를 조작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력자보다 안전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됩니다. 이에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늘 강조했죠."

기술연구소 이희봉 수석은 교육의 '실전성' 역시 놓치지 않았다고 말한다. "실제 업무에 투입돼서 바로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교육 내용도 실질 업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어요."

회사 차원의 지원도 적극적이었다. CEO를 주축으로

평균 경력 18년의 고숙련 기술자들이 기업현장교사로 참여해 교육의 질을 높였을 뿐 아니라, 학습근로자 대상 각종 수당,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다기능 교육 제도를 실행하는 등 동기부여도 잊지 않았다. 훈련 결과에 대한 상세한 면담과 피드백도 일학습병행의 효과를 높여주었다.

선취업·후진학으로 그리는 더 큰 미래

"고숙련 일학습병행을 통해 학생 신분으로 업무를 먼저 몸에 익히게 돼, 졸업 후 생산라인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생산팀 류진하 수석의 말처럼, 일학습병행 교육훈련은 실전에서 빛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사내에 학습문화가 정착되면서 원가절감, 매출 신장이라는 중





은 성과를 거둔 것은 물론이고, 회사 내 각종 개선 프로젝트가 활성화됐다. 이직률 감소와 장기 재직률 향상으로 생산직 평균 연령도 크게 낮아졌다. 또한 외부적으로 스마트팩토리 제조혁신 대상, 7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수상, 전국품질분임조 대회 6년 연속 수상 등 눈에 띄는 혁신 활동을 펼치며 지난 2020년 코스닥 상장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제일전기공업(주)은 앞으로도 P-TECH 실시 인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향후 4년제 대학과의 연계도 고려하여 선취업·후진학의 학습문화를 고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2030 스마트 배선기구 글로벌 중견기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오늘도 매진하는 제일전기공업(주). 인재 양성의 가치를 아는 기업이기에, 그들이 그려갈 미래가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학습근로자에게 묻는다! 일학습병행, 어떠셨나요?



품질경영팀 윤영현 사원

이론적 습득이 다소 힘들었으나, 직무와 연계된 일·학습을 병행하다 보니 업무 수행 이해도와 추진력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덕분에 자신감도 생기고, 기업 문화와 현장 실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죠. 앞으로도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산조립반 최우림 사원

기업 현장교사이신 선배님들께 실무에 관련된 지식을 직접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 저도 누군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직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올해 P-TECH 졸업 후 4년제 대학 진학을 통해 학사 학위에 적극 도전해, 그 꿈에 한발 다가가 보겠습니다.

기술연구소 소프트웨어팀 양가현 사원

저는 동서대학교 인공지능응용학과 4학년이며, 동시에 제일전기공업의 소프트웨어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전공 기술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과 불안감을 일·학습병행을 통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극복하고, 제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축구선수도 해낸 해외취업 그리고 창업

2022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우수상 수상작



해외취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단순하고 무지한 축구선수도 해냈습니다. 그리고 해외취업 성공으로, 축구밖에 모르던 한 선수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기회를 보고 떠난 우즈베키스탄에서 모든 것을 잃다

*

해외 진출의 시작은 2017년 25살 때였다. 한국인 선수들로만 구성된 스페인 리그에 참여하는 신생 구단에 입단하여, 하부리그였지만 첫 해외 생활을 하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후 군 입대와 국내 하부리그에서 이어간 선수 생활을 거쳐 2020년 시즌을 마치고, 나는 29살의 나이로 다시 구단 테스트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하게 됐다.

코로나 사태 등의 문제로 어렵게 도착한 우즈베키스탄. 그 낯선 땅,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테스트에 임했지만 계약 실패 소식이 계속됐다. 테스트 당시 좋은 반응을 보였던 마지막 구단마저도 나의 기대감을 앗아가며 이적 시장의 문이 닫혔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노력했던 시간들, 축구가 전부였던 삶을 통째로 잃은 느



낌이었다.

29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연고도 없는 타국에 홀로 남겨져 있을 때의 절망감은 너무나 컸지만 마음을 다잡았다. 누구에게나 내리막길은 있다는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했다. 결국 그렇게 다시 일어설 인생 2막을 위해 해외취업 도전을 시작했다.

절망 속에 해외취업의 기회를 보다

*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는 맞지 않아 밖으로 나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매일 유튜브 영상을 보며 영어를 익혔다. 그 꾸준함 덕분에 수준급은 아니더라도 의사소통 정도는 가능해졌다.

그 무렵, 현지에서 축구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 덕분에 '말레이시아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나는 월드잡과 말레이시아 교민 카페 등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고, 면접을 보기 시작했다. 희망 직종은 고객지원 분야. 축구선수는 주변을 챙기기보다는 오롯이 선수 본인의 컨디션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섰다. 평생 축구만 하던 내게 회사 면접을 본다는 일은 너무나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먼저 취업한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도 받으며 차근차근 준비했다. 1차 면접은 한국어 인터뷰였지만 2차 면접은 영어로 진행됐다.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내 생각을 전달했던 모습을 좋게 평가받아, 마침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었다.

드디어 말레이시아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다

*

비자 승인 후 2021년 7월, 우즈베키스탄을 떠나 말레이시아 땅에 첫발을 내디뎠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니 시간도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다. 누구나 그렇듯 처음 실무에 투입되었을 때는 실수도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축되기도 했다. 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빠르게 적응하여 회사 업무도 곧잘 해내게 됐다. 축구는 접었지만 여가 시간마다 풋살이나 축구를 즐기던 것을 계기로 축구선수였다는 게 알려지며, 아이들을 가르칠 기회도 생겼다. 자연스럽게 축구가 주는 가치를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됐다. 현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곳에 축구 아카데미를 창업하고, 나아가 말레이시아 최고의 유소년 축구팀을 만들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이다. 최근 나는 목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틈틈이 구장 설립이 가능한 곳을 찾아보고, 잔디 공급 업체에 찾아가 정보를 알아보는 등 적극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자신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다. 이미 익숙해진 현재 환경에 안주하지 말고, 그곳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해보라고. 그 새로운 도전이 해외취업 또는 창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환경 속에 놓일 때, 그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 2022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지면 관계상 실제 수기 내용을 각색하여 짧게 전합니다. 자세한 수기는 월드잡플러스(worldjob.or.kr)에서 확인하세요!



지역과 상생하는 행복 일터를 빛다



행복바라기 행복

Re'da

고객의 생활에 청결과 행복을 더해주는 그들의 서비스만큼이나, 지역과 환경에도 반짝반짝한 빛을 더하는 기업이 있다. 바로 사회적기업 ㈜행복바라기다. ‘함께 나누는 사랑과 행복’이라는 기업 이념처럼, 매 순간 고객과 직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생각하는 김귀숙 대표를 만났다.

어떻게 행복바라기를 설립하게 되셨나요?

창업 이전에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교육사업을 8년 정도 진행했고, 시민단체에서 7년여간 돌봄사업을 담당하며 교육생을 관리하고 일자리를 연계해드리는 일을 했었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매칭 등 분명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하게 됐어요. 취약계층의 전문성 결여나 임금의 불균형 문제 등이 이들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경제활동을 저해시키고 있었거든요. 이에 취약계층이 정직원으로 취업을 하고, 체계적 교육을 통해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었죠. 그러던 중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을 알게 되고 무작정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게 행복바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소개해주신다면요?

행복바라기는 클린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인 사업 청소사업부와, 사람과 자연에 이로운 세정제를 제조·판매하는 브랜드 ‘르다일’ 제품사업부 두 분야를 함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클린서비스 분야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직원들로 이뤄져 있고, 약품 사용과 청소 공법을 최대한 환경친화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서비스의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현재 울산 기업 중 유일무이하게 ‘조리실 덕트 내 외부 청소와 관련된 독자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지역 내 학교·기업·기관 등 60여 곳의 조리실 덕트 청소를 진행 중입니다.

클린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점차 환경과 공간에 대한 것은 물론 개인의 청결과 직결된 세정제





#상생스토리

매월 상생스토리에서는
공단과 PRESG 업무 협약을 맺은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추천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소개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이들을
응원해주세요.



행복바라기

대표자 김귀숙

사업 청소·방역 소독, 생활밀착형 제품,
친환경 화장비누 등

본사 울산 남구 중앙로198번길 7 1층
T. 052-257-2115



품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친환경 세정제품 제조 분야 사업입니다.

현재 자체브랜드 '르다일'을 개발해 활발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브랜드 '르다일'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주세요.

2017년 울산의 대나무와 법제유황을 배합해 만든 화장비누를 출시한 것이 르다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직접 비누 관련 제조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많은 연구를 통해 저희만의 독자적인 비누 베이스를 개발할 수 있었죠.

이후 2020년 쑥, 알로에, 어성초 등 피부에 이로운 성분들로만 구성된 자연유래 수제비누 6종을, 지난 2021년에는 약 4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일회용 타정비누인 '한알비누'를 출시했어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장비 및 기초기술 개발이 완료됐으며, 성분 및 제조 장비, 공법에 대한 특허등록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하여 클렌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이곳 무거동 2공장에 설비와 시설을 갖춰 오픈했고, 화장품제조업 등록 등 제반 준비를 완료했어요.

앞으로 페이스 전용 클렌저, 여행용 울인원클렌저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행복바라기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처음으로 맺은 청소 계약이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어요. 사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 노하우가 부족한 상태로 시작하다 보니, 보통 5시간이면 끝날 청소가 12시간이



나 걸렸죠. 당시 저를 포함한 3명의 직원 모두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서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서울의 우수한 청소 기업을 찾아가 약품과 도구, 청소법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 받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이 행복바라기의 터닝포인트가 된 셈이죠.

처음 일을 맡겨준 그 고객님은 이후에 저희를 다시 찾아주셨어요. 열심히 책임을 다해준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자녀분의 신혼집 입주 청소를 의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욱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매년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30%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등과 탄력적 근무형태



를 활용하며 업무에 함께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조율하고 있지요. 또한 외부적으로는 지역 복지기관 6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각 기관마다 매월 1회 이상 시설 내외부 냄새 제거 및 방역·소독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1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 부울경지역본부와 MOU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재가복지 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방역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작년 한 해 서비스 환산금액 기준 약 1억 5천만 원 규모의 지원을 약 6,400명의 수혜자에게 제공했어요. 최근에는 R&D사업을 통해 소독기를 제작했는데, 이를 보급형 가정용 방역기로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에 무료 보급할 계획도 있습니다.

행복바라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행복을 추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 행복바라기의 큰 비전이에요. 이와 함께 ESG 경영, 제품 연구 및 클린서비스의 지속 성장을 통

해 그린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바라기의 브랜드 '르다일'의 인지도 상승과 판로 확보를 도모하여 2023년에는 각국 샘플 테스트에 이어 본격적인 수출길이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항상 처음의 마음가짐처럼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고,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서 많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더 성장하는 행복바라기가 되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생협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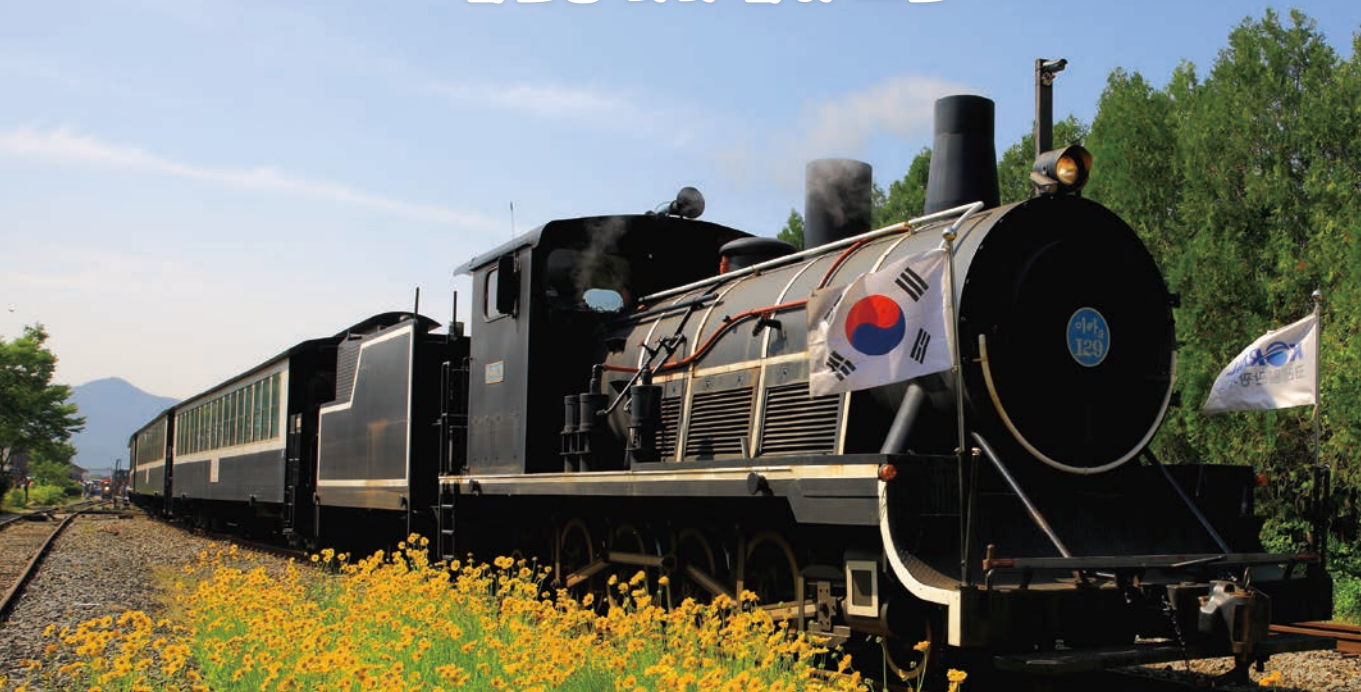
한국산업인력공단 온라인홍보센터는 예산·인력 등의 이유로 제품홍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등을 위해 마케팅·홍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QR코드를 인식해보세요!

#한 단계 #성장하며
함께 한 걸음



칙칙폭폭

섬진강 따라 봄이 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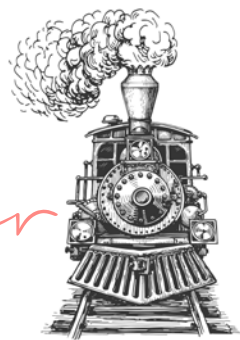




소리

3월이면 섬진강 주변에는 봄의 전령사로 알려진 산수유꽃이 노랗게 피어난다. 겨우내 움츠려 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봄의 기운을 불어넣어 줄 때가 되었던 뜻이다. 섬진강을 따라 봄이 오는 소리를 찾아 전라남도 곡성군의 섬진강기차마을로 가본다.

Seomjin River 섬진강기차마을



버려진 역사와 기차길에 생명을 불어넣다

기차를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테마공원인 섬진강기차마을은 지난 2004년 처음 문을 열었다. 전라선 철도 이전에 따라 남겨진 폐선로에 관광용 미니열차를 들인 게 그 시작이었다. 이듬해, 증기기관차가 운행을 시작하면서 섬진강기차마을은 곡성군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뒤이어 장미공원, 드림랜드 등 문화체험시설이 하나둘 들어서며 섬진강기차마을은 기차를 주제로 한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면모를 제대로 갖췄다.

섬진강기차마을로 떠나는 여행은 구 곡성역에서 시작한다.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듯 시골 기차역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구 곡성역이 지어진 것은 1933년. 등록문화재 제122호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와 드라마 <토지>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물자를 수탈당하고 젊은이들이 강제로 끌려간 아픔을 간직한 곳이자, 해방 후에는 여수의 해산물과 전북의 농산물을 교류하던 역사적 공간이다. 현재는 섬진강기차마을의 정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추억과 낭만을 싣고 달리는 증기기관차

섬진강기차마을의 주인공은 칙칙푹푹 기적소리와 함께 수증기를 내뿜으며 달리는 증기기관차다. 사실 섬진강기차마을의 증기기관차는 디젤엔진이 탑재된 디젤열차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더이상 증기기관차가 제작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시커먼 증기기관차는 어른에게는 향수를, 아이에게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경쾌한 기적 소리와 함께 구 곡성역을 떠난 증기기관차는 그림 같은 섬진강 풍경을 품고 가정역까지 달린다. 가정역까지는 25분쯤 걸리는데, 이 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길로 꼽힌다.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을 따라 이제 막 파릇파릇 시작된 새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가정역에 도착한 증기기관차는 잠시 정차한 뒤 왔던 길을 되짚어 다시 구 곡성역으로 돌아간다. 시간이 남는다면 가정역 건너편에 자리한 섬진강 출렁다리를 건너보거나 섬진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여유를 부려도 좋다.

모두 한곳에서 즐기는 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기차마을의 또 하나의 묘미는 섬진강레일바이크다. 가정역에서 출발하여 봉조 반환점을 돌아 다시 가정역으로 돌아오는 3.6km 순환형 코스다. 증기기관차와 반대 방향이라 섬진강의 새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으며 실제 기차가 달리는 모습도 감상할 수 있다.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를 타고 섬진강 풍경을 원 없이 즐겼다면 이제는 섬진강기차마을을 돌아볼 차례다. 섬진강기차마을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하

다. 장미공원은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증기기관차만큼 유명한 핫 플레이스다. 전국 최다 장미 품종을 자랑하는데, 5월이면 수억 송이의 장미가 장관을 이룬다.

섬진강기차마을을 조금 더 이색적으로 만나고 싶다면 마을 외곽을 크게 한 바퀴 도는 미니기차를 이용하거나 곡성 읍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대관람차를 추천한다. 이외에도 섬진강의 자연 생태를 담은 생태학습관, 먹이 주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동물농장, 어린이를 위한 치치뽀뽀놀이터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즐거운 시간을 선사한다.



1. 섬진강기차마을 전경
2.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3. 또 하나의 즐거움 레일바이크
4. 전국 최다 품종을 자랑하는 장미공원



함께 둘러보면 좋은 동네방네



섬진강 침실습지

섬진강 유일의 국가보호습지로, 버드나무와 갈대숲 그리고 모래톱 섬들이 어우러져 있다. 멸종위기종 수달과 흰꼬리수리, 삿, 남생이 등 650여 생물들의 서식지

이기도 하다. 일교차가 큰 봄이면 섬진강 위로 새벽안개가 피어오르면서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리 91-2



도림사

도림사는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세웠다고 전해진다. 도인이 숲처럼 모여들었다 하여 붙여진 그 이름처럼 천혜의 자연이 빚어낸 계곡을 따라 동악산 기슭 울창한 숲속에 자리해있다. 괘불탱(보물 1341호), 아미타여래설법도(보물 1934호) 등 많은 문화재가 남아 있다.

전남 곡성군 곡성읍 도림로 175

곡성섬진강천문대

섬진강의 청정한 자연환경 덕분에 정밀도와 선명도가 뛰어난 천문 관측이 가능하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순수 과학기술로 제작한 600mm 천체 망원이 설치된 주관측실, 보조관측실, 8m 원형 돔 스크린을 갖춘 천체투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남 구례군 구례읍 섬진강로 1234

14:00 - 22:00,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MZ가 그리는 재테크

新풍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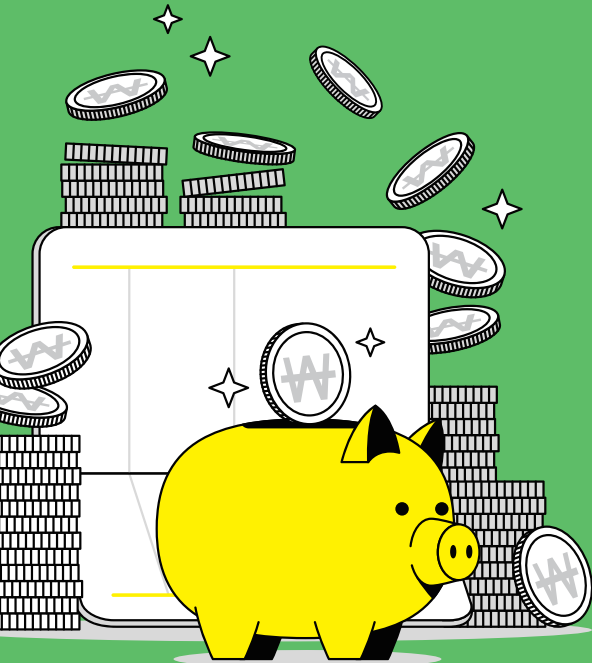
저성장과 저금리가 지속되는 지금, 무조건 덜 쓰고 모으는 재테크는 MZ 세대에겐 통하지 않았다. 자신의 취향에는 과감히 ‘플렉스’하고, 때로는 이색적인 투자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재테크는 어떤 모습일까.

때로는 플렉스, 때로는 투자

올로 라이프와 플렉스 소비의 대명사 MZ세대가 한편으로 재테크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전국 만 15세~39세 9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85.8%는 최근 3년 이내 재테크를 한 경험이 있었고, 무려 91.7%가 향후 3년 이내 재테크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세대의 재테크는 책을 읽고, 은행 직원을 찾아가는 예전과는 분명 다르다. MZ세대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해 재테크를 공부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금융기관 직원보다 경제 블로거나 유튜버 등이 알려주는 정보를 더 신뢰하며, 얻게 된 정보나 실제 투자 경험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한다.

금융 서비스 이용 방법도 변화했다. MZ세대의 86.8%는 금융 거래 시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 75.1%가 은행 지점을 이용하는 점과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금융 및 투자 활동에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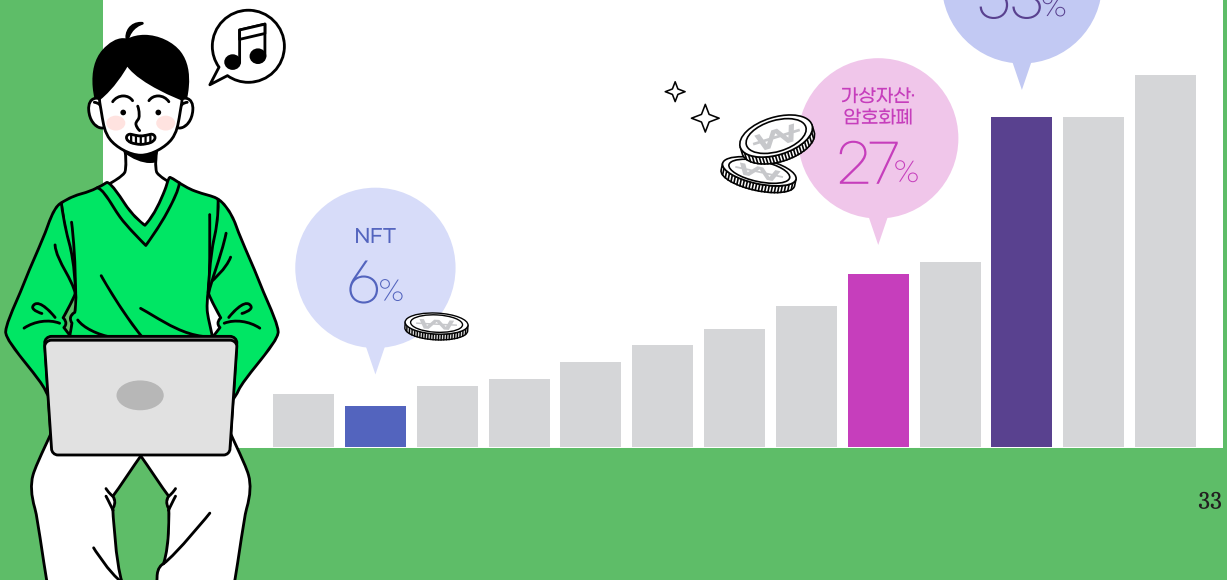
주식 대신 신발을 구매하는 MZ

MZ세대는 기존의 투자 방식이나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관심사로 재테크에 도전한다. 그중 하나가 희소한 아이템으로 이윤을 내는 '리셀테크'다. 이는 리셀(resell)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한정판 신발이나 명품 가방을 구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내는 방식을 의미한다. 구매자는 직접 손품, 발품을 팔지 않는 대신 타인이 나 대신 들인 노력과 시간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붙여준다. 특히 스니커즈 리셀이 대표적인데, 관련된 전문 거래 플랫폼이 생길 정도다. 아트테크와 뮤직테크도 MZ세대에게 익숙한 재테크 방식이다.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투게더'나 음악IP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등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이나 음악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처럼 MZ세대에게 재테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짧고, 간편하고, 재미있

는 활동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기업들도 보다 가볍고 흥미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1~2년 전부터 토스, 핀크와 같은 핀테크 기업을 시작으로 출시되고 있는 잔돈 저축 상품과 카카오뱅크의 '저금통' 서비스가 그 예다. MZ세대로 인해 달라지는 新 재테크 풍조. 옛날의 투자 방식만 고집하는 소비자에게도, 관련 업계에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MZ세대가 경험한 신 재테크 방법 (자료 : 한화투자증권&대학내일20대연구소)



노인을 위한 시장은 있다 에이지 프렌들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제 국가와 기업은 고령화에 저항하기보다 그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나이 든 소비자들이 경영의 지평을 바꿀 것'이라는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처럼, 바야흐로 '에이지 프렌들리' 시대가 문을 열었다.



#에이지 프렌들리

새로운 시장,
시니어에 주목하라

강한 소비력을 보유하며 무섭게 팽창하는 세대, 바로 시니어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인구 통계적으로 보면 영향력은 더 가공할 만하다. 2030년 기준 일본 38%, 독일 34%, 영국 28%, 미국과 중국 각각 26%와 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시니어 시장이 무르익고 있는 국가에서는 시니어를 둘러싼 사회 제도와 시스템의 개편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와 눈높이를 맞춘 교육 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중국 산업정보통신부는 시니어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개편하라고 명령했다. 아이콘 크기를 키울 것, 선명한 서체를 더 많이 사용할 것 등의 기준이 제시되었다. 한 예로, 중국 철도청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도 음성으로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다. 온라인 매표의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처럼 고령자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그들이 원하는 바에 맞춰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과 사회의 철학을 바로 '에이지 프렌들리(Age Friendly)'라고 한다.

#시니어 1인 가구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지금까지 시장이 가장 주목한 가구 유형은 3인 이상의 다인 가구였다. 이제 그 자리를 1인 가구가 차지하게 된다. 그중 시니어들의 1인 가구 비중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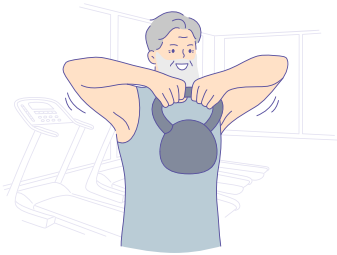
흔히 시니어들이 자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 조사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한 시니어의 비율은 2008년 32.5%에서 2020년 12.8%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 최후의 순간까지 도움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 많은 시니어들의 소망이다.

이에 따라 시니어 1인 가구를 공략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보안서비스, 소형가전, 소포장·반조리 식품 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고령자의 1인 독립생활을 가능케 해주는 케어 프로그램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우즈(Houz)'는 7일 동안의 활동 패턴을 기록해 사용자의 일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온도를 감지하는 키트, 전열 기구 사용을 감지하는 키트 등을 통해 일상의 변화를 감지함으로써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가족이 모니터링하게 된다.

#에이징 테크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시대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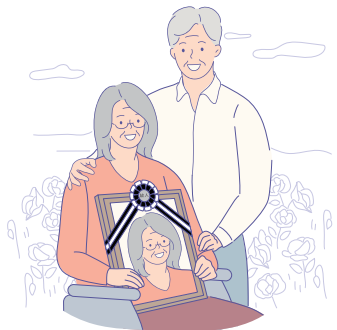


과학과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넘어 인간 수명이 120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에이징 테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에이징 테크(Aging Tech)'란 시니어 대상의 기술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고령자의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을 위한 기술,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시니어의 건강을 관리하거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는 기술이 대표적이다. '오캠(Orcam)'은 시각 정보를 사운드로 변환해 전달해주는 장치로, 안경에 부착하면 책이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글자를 읽어주거나 열굴인식 기능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에이징 테크는 단지 수동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노화를 막고 건강을 관리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노화 세포를 추적해 제거하거나 재생하는 등 최후까지도 질병 없이 건강하게 노후를 누리게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웰다잉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시니어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죽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웰빙을 넘어 '웰다잉(Well-dying)'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웰다잉 논의의 공감대와 사회적 바탕이 마련되었다. 웰다잉은 주체적으로 죽음을 대비하는 활동이다. 불필요한 연명치료나 심폐소생을 거부함으로써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자, 생전 유서를 작성하거나 임종할 장소를 정하는 일련의 준비다. 산업계에서도 관련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한 예로 '페어윌(Farewill)'은 유언장 작성부터 장례식 선택까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돕는 서비스다. 법적 서류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공증하는 것까지 포함하며, 장례 전반에 걸쳐 고객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이지 프렌들리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시니어가 이용하기 편리한 레스토랑처럼 시니어에 친화적인 서비스나 상품 등에 인증마크를 달아주는 것이다. 실제로 이 인증을 받은 기업 및 가게의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니어를 배제해서는 더 이상 기업과 사회가 성장할 수 없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갈망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무엇인지 다각도로 살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직업에 도전해보세요

노인심리상담사

Geriatric psychology consultant

무슨 일을 하나요?

노인의 정신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질병이나 위험에서의 보호, 평생교육 등을 위해 전문적 상담과 관리를 제공합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정보를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하기를 좋아한다!
- 타인에 대해 개방적이다!
- 환경 변화에 적응을 잘하고 융통성이 뛰어나다!

도움이 될 자격 Tip

임상심리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자격으로,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한 심리평가(심리검사)·심리치료상담·심리재활·심리교육·심리자문 등을 수행합니다.

진출 분야

사회복지기관, 학교, 병원, 심리상담기관 등



요양보호사

Care worker

무슨 일을 하나요?

고령이나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며 배려심이 많다!
-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 실제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움직이는 체험을 중시한다!

도움이 될 자격 Tip

요양보호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신체 활동 보조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진출 분야

노인 전문 병원, 복지기관, 요양원 등





올드루키의 취업전략!

이미 재직 경험이 있음에도 경력이 아닌 신입사원으로 재지원하고자 하는 ‘올드루키’들. 지난 경력을 포기하면서까지 ‘중고신입’이 되길 자처하는 이유와, 그들의 취업전략까지 알아본다.

인력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한 ‘올드루키’

올드루키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중고신입’이라는 개념으로서 꽤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최근 그 외연이 확대되며 더욱 다양한 형태로 인력시장을 채워나가는 중이다. 이전까지 중고신입 사이에선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익힌 뒤, 큰 기업의 신규직원으로 이직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최근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에 들어갔음에도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과감히 다른 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오늘날 올드루키를 말할 땐 이전 경력을 살려 재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혀 무관한 업무를 찾아 새로이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모두 포괄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멀어지고,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빠르게 이직하려는 근로자와 앞당겨진 정년(停年)에 선택을 재촉받는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올드루키’의 노선을 택하는 이들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추세다.

잘은 아직, 이제는 흠이 아닌 성장의 기회?

예전에는 이직에 대한 인식이 좋지만은 않았지만, 최근엔 기업도 이들을 실무 인재로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구인 플랫폼 사람이 기업 292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61%의 기업이 올드루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드루키 채용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어서(79.7%)’, ‘교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38.4%)’, ‘노련함이 있을 것 같아서(37.3%)’ 등을 꼽았다. 물론 우려의 시각도 있다. 무관한 업무로 이직하는 지원자를 채용할 땐 직무에 적합한 인재일지 고려해야 하기도 하고, 이직의 이유가 이전 회사에서의 부적응 때문은 아닌지 등 사전에 알

기 어려운 부정적 요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고신입’은 면접전형에서 받는 질문의 레벨 자체가 달라지기도 한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의 경우가 아닌, 유관 업무 경험이 있는 올드루키라면 특정한 소프트웨어 스킬이나 상세한 업무 솔루션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을 요구받을 수도 있는 것. 이는 본인의 역량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올드루키는 서류지원 때부터 내가 가진 능력 수준을 솔직히 제시하고, 입사 후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가진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잘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좋다.

루키 vs 루키, 그것이 알고 싶다!

💬 열정적인 올드루키 A씨

이전 회사 경력은 어느 정도까지 쓰는 게 좋을까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이전 회사 경력을 작성할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이면 장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하는 인턴십 경력이나 아닌 이상, 기재하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일지도 모른다. 조직 생활에 적응을 못 한 건 아닐지, 업무가 안 맞았던 게 아닌지 등 기업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미리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 구직을 처음 시작한 B씨

기업들이 올드루키만 선호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직원을 뽑아 육성하려는 기조를 지닌 회사도 많다. 본인의 열정은 물론 실질적 경력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직무 관련 스터디나 대외활동 경험, 전공 적합도를 어필하면 좋다. 관련 산업군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현직자 미팅을 해보거나 직무부트캠프 등에 참여해 자신만의 역량을 키워 보도록 하자.

한국직업방송을
만나는 방법



SK broadband 273번, KT Olleh 252번, LG U+ 251번, skylife 189번, T브로드 210번, CJ헬로비전 230번, 딜라이브 256번

- 홈페이지·유튜브 실시간 방송시청 또는 VOD 다시보기(모바일 기기도 가능)

- 세부 시청 방법 및 지역별 채널번호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홍보미디어실(052-714-8196)로 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



오늘날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동시에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정보 공개가 활성화되면서 조직의 청렴과 윤리경영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과거처럼 문서로만 조직의 경영 구조와 활동을 볼 수 있었던 시기와는 다르게 대중은 조직의 경영과 부패 현황을 빠르게 접하고 공유한다. 우리는 어느 기업이 혹은 국가와 정치인의 비윤리적인 모습이 인터넷에 드러나 사회적 비판을 받는 사례를 자주 본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청렴과 윤리경영은 국가와 기업의 신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청렴은 성품과 행동이 바르며 재물에 욕심을 가지는 마음이 없는 상태이며, 윤리경영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기업윤리를 가장 중요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는 경영 방향이다. 경제 위기에도 기업이 높은 윤리적 기준으로 고객의 신뢰를 받으며 더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청렴과 윤리경영은 회사 발전에 필수 요소이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기업은 소비자가 선택하고 싶은 기준이 되었고 기업이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경영이 필요하

게 된 것이다. 기업의 수준이 제품으로만 평가받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착한 일을 한 사람의 물건을 많이 팔아준다는 돈쫄(돈으로 흔내다)이라는 신조어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현상을 보더라도 선한 영향력이 주는 소비문화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 펼치는 사회공헌은 윤리 경영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뜻으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는 기업이 경제와 법적 책임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 환경, 평화, 사회적 정의 등 폭넓은 사회적 가치를 지원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들은 자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계획을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서 기업은 현지 노동자 및 국가와 환경, 소비자, 투자자 등 많은 사회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공익 확대와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공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경영자가 가지는 사회적 책임이다. 다행히 우리 사회의 소비자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진도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 글쓴이가 접한 기업의 사회공헌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업은 참된 나라 사랑

을 실천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공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철학이 요구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공헌 대상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가령 한 기업이 남북 분단이 70년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극복하고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평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면 무엇이 예상되는가? 가장 먼저 기업의 경영진을 정치적으로 보수, 중도, 진보 중 하나로 판단하고 정권에 따라 영향과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다른 예로 유력한 정치인이 개발을 추진하는 데, 그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이 해당 환경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혹은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 모임을 지원한다면 우리는 공통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 바로 그러한 사회공헌을 펼치는 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구분이 없다.

우리의 시민의식은 성장했고, 그 영향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정치권의 권위가 개입하는 현상을 시민사회가 경계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기업의 올바른 사회공헌 활동이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나 더 활성화된다면 우리는 기업과 시민사회가 펼치는 평화, 역사 정의, 환경, 법 앞의 평등, 정의로운 교육 활동을 돈쫄처럼 작은 일상에서도 맞이하며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HRD NEWS

2023 March vol. 321

01

HRD

노사 공동 친환경·탄소중립 환경가치 제고 노력 실천 선언

공단은 2월 6일(월) 친환경·탄소중립의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노사 공동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식은 노사 간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노사 대표는 공동 실천 선언문을 선포하며 온실가스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 정책의 적극 이행을 약속했다. 또한, 울산 지역에 특화된 환경 가치를 창출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해 공단 임직원과 지역민들의 친환경 인식 확산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녹색제품* 약 26억 원어치를 구매해 목표 대비 182%를 달성했으며 올해도 구매를 독려해 자원 절약과 환경보전에 앞장설 전망이다. 이밖에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제를 통한 디지털 탄소저감 캠페인과 기사 등급 시험의 CBT 전면 도입을 통한 종이 사용 절감 등 업무에 친환경 운동을 접목하고 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탄소중립과 이해관계자 참여 등 ESG경영의 필요성은 자명하다”라며, “신기술 활용, 디지털화를 통한 탄소배출 절감 사례를 발굴·전파하여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노동조합 이주형 위원장은 “이번 친환경·탄소중립 선언의 세부 추진계획과 지침을 마련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녹색제품 :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우수재활용(GR) 인증 및 저탄소 인증 제품 등을 말함



02 HRD

공단, 전 국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3개 기관과 MOU 체결



공단은 2월 16일(목)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및 산업인력개발학과, 한국산업교육학회와 전 국민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호 정보 교류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구직자, 재직자 등의 경쟁력 강화 지원 △산업 인력개발 전문가 양성 등이다.

공단은 올해부터 개인별 자격취득 및 교육훈련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에서 발급된 직무능력 인정서는 취업과 기업의 인사 배치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1:1 취업 솔루션을 제공해 청년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구직 효능감을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 기업 맞춤형 채용 모델을 지원하고 인사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산업인력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의 핵심역량이 시너지 효과를 발해 구직자, 재직자 등 전 국민의 직무역량 향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확산을 통한 국가 인적자원개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03 HRD

공단, ‘사내 자격검정제도’ 장려 통해 특수직무 전문가 양성



공단은 기업 현장에 필요한 특수 직무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사업주 자격검정’ 사업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사업주 자격’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내 자격검정제도를 도입·운영할 경우 자격 개발비와 운영비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종 목별로 12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삼성SDS 등 100개 기업 232개 종목의 사업주 자격을 선정했으며, 2017년부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참여 기업의 운영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9월에 있었던 경진대회에서 서류 심사 및 발표 심사를 통해 한전KPS와 코렘 등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올해도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독자 여러분의
풍성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참여기간
3월 27일(월)까지

올해 꼭 배우고 싶은 것, 또는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HRD KOREA」 이번 호 테마인 일학습병행에 관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섯 분을 추천해 상품(3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vol.321 HRDKorea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왼쪽의 QR 코드를 인식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만드는 HRD Korea! 사업 참여 스토리 공모

독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단 사업에 참여 경험 이야기 등을 사보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훈련 참여 스토리, 국가기술자격 취득 스토리 등...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응모 분량 A4용지 1장 내외(글자수 약 2천자)
보내실 곳 dyy927@hrdkorea.or.kr
응모 기한 3월 27일(월)까지





HiRDKorea

2023년 2월호
당첨자

—
2023년 2월호 의견 일부를
요약해 전합니다.

박순화 | 최영지 | 장삼동 | 박경수 | 장효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직무능력 개발의 지름길, NCS’를 보며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움직임을 느낍니다. NCS, 일학습병행제 등 공단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어깨를 펼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화

HRD 뉴스 중 ‘공단, 청년 취업률이 높은 국가기술자격 Top 5 발표’ 단막 기사를 읽고 자격증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에 올해는 자격증 취득에도 도전해보려 합니다.

박경수

‘찬솔사회적협동조합’의 인터뷰를 잘 읽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하도록 교육 및 지원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 수 있다면 행복하고 훈훈한 사회가 되리라 확신해 봅니다.

최영지

‘레트로’에 대한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유행은 새 세대가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또 다른 문화로 창조되는 듯합니다. ‘복고’는 진부함이 아닌 새로운 문화의 베이스임을 실감합니다.

장효선

양민석 모던라인 대표의 “꿈꾸는 자는 성공한다”라는 말을 통해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를 위해 치열하게 배우고 노력하면 최고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삼동



HiRDKorea

이번호는 어떠셨나요?

QR코드, 이메일로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dyy927@hrdkorea.or.kr

*당첨자 안내를 위해 이름,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주세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큐넷을 꼭 참고해주세요!			1 • 기사 제1회 필기시험 (3.1~3.15) : 3월부터 응시자격을 갖춘자	2 • 제40회 관세사 1, 2차 빈자리 원서접수(3.2~3.3)	3	4 •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시험
5	6 • 제38회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1차 원서접수 (3.6~3.10)	7	8	9	10	11 • 제40회 관세사 1차 시험
12	13 • 기능사 제2회 필기시험 원서접수(3.13~3.16)	14	15 • 기술사 제129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제21회 사회복지사1급 최종 합격자 발표	16	17	18
19	20	21 • 기술사 제129회 면접시험 원서접수(3.21~3.24) • 기사 제1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22 • 제60회 변리사 1차 합격자 발표	23 •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1차 빈자리원서접수(3.23~3.24)	24	25 •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3.25~4.7) • 기능장 제73회 실기시험(3.25~4.7) • 제41회 문화재수리기술자 1차 시험
26	27 •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원서접수(3.27~3.31) • 제33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2차 원서접수(3.27~3.31)	28 • 기사 제1회 실기시험 원서접수(3.28~3.31)	29 • 제21회 경매사 1차 합격자 발표	30	31	

※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www.Q-net.or.kr)을 참조하세요.

• 원서접수 일정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미리 알아보는 4월 일정	<div> <div>☉ 국가기술자격</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3.25~4.7) • 기능장 제73회 실기시험(3.25~4.7) • 기능사 제2회 필기시험(4.8~4.12) • 기술사 제130회 필기시험 원서접수(4.10~4.13) • 기술사 제129회 면접시험(4.15~4.25) • 기사 제2회 필기시험 원서접수(4.17~4.20) •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 1차 합격자 발표(4.19) • 기능사 제2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4.19) • 기능장 제73회 실기시험 1차 합격자 발표(4.19) • 기사 제1회 실기시험(4.22~5.7) •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 2차 합격자 발표(4.26) • 기능장 제73회 실기시험 2차 합격자 발표(4.26) </div> <div> <div>☉ 국가전문자격</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1차 시험(4.1) • 제60회 세무사 1, 2차 원서접수(4.3~4.7) • 제23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원서접수(4.3~4.7) •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합격자 발표(4.5) • 제20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빈자리원서접수(4.6~4.7) •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4.8) •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4.10~4.19) • 제40회 관세사 1차 합격자 발표(4.12) • 제20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시험(4.15) • 제9회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원서접수(4.17~4.21) • 제33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2차 빈자리원서접수(4.20~4.21) • 제38회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1차 시험(4.22) • 제60회 변리사 2차 원서접수(4.24~4.28) • 제11회 행정사 1차 원서접수(4.24~4.28) • 제33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2차 시험(4.29) </div>
	<p>• 부득이한 경우 시행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큐넷을 꼭 참고해주세요.</p> <p>•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www.Q-net.or.kr)을 참조하세요.</p>

2023년 아시아기능경기대회 제6차 인천 정기총회 개최

WorldSkills Asia General Assembly Incheon 2023

■ 주최

WorldSkills Asia Board(아시아 기능경기 이사회)

■ 주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 기간

2023년 3월 8일(수)~3월 10일(금)

■ 장소

인천 송도 웨라톤 호텔

■ 참가

아랍에미리트, 대만 등 18개 회원국 행정대표 및 기술 대표 등 90여명

■ 주요내용

| 정기총회 | 아시아기능경기대회 개최 관련,
아시아 기술발전을 위한 발표 등

| 공식행사 | 환영·환송 만찬

| 부대행사 | 산업시찰, 문화체험



당 신 의 꿈 을 피 워 줄 평 생 파 트 너

당신의 능력을 꽃 피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